

3. 후삼국시기 순천지역 호족의 동향

신라 말에 이르러, 견훤이 892년에 후백제를 건국하고 궁예가 901년에 후고구려(태봉)를 건국하여 후삼국시기가 시작되었다. 농민 출신인 견훤은 신라의 중앙군으로, 경주에서 근무하다가 서남해의 방수군(防戍軍)이 되었다. 그는 용감하게 근무하여 방수군의 비장(裨將)이 되었다. 비장은 독립된 부대의 지휘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상당한 수의 군사를 거느리는 단위부대의 장이었을 것이다. 당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견훤은 무리를 모아 여러 주현(州縣)을 공략하면서 세력을 형성하여 무진주(武珍州 : 현 광주)를 점령하고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이어 900년에는 완산주(完山州 : 현 전주)로 도읍을 옮겨 후백제왕을 칭하고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한 이후 전남지역의 호족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완산적(完山賊) 견훤이 주(州)에 거하여 후백제라 자칭하니 무주 동남의 군현이 강속하였다.(참국사기 권11, 진성여왕 6)

이 사료에 따르면, 견훤이 무주를 점령하여 후백제를 건국하였는데, 이때 무주 동남지역의 군현이 투항하여 내속(來屬)하였다. 여기서 무주 동남의 군현은 대체로 광주의 동남지역, 즉 곡성·구례·순천·여수·광양·보성·고흥지역을 말한다. 이들 지역 중에서 곡성을 제외한 구례·순천·여수·광양·보성·고흥지역은 현재 '동부 6군'으로 통칭되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지역권으로 묶여 있다.

곡성과 '동부 6군'은 섬진강수계(蟾津江水界)에 속하는 동일한 문화권이다. 그런 만큼 후삼국 시기에도 이들 무주 동남의 군현은 동일한 지역적 유대관계로 결합되었다고 추측된다. 이들 무주의 동남지역을 순천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순천지역이라는 용어는 신라 말 고려 초에 이들 지역의 중심지가 승주, 즉 현재의 순천지역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자, 이들 순천지역 군현의 호족들은 함께 견훤에 귀부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지역은 후백제의 영역으로서 후백제의 주요한 정치세력을 배출하였다. 한편 위의 사료는 무주의 서부지역, 즉 나주지역이 견훤에게 투항하여 내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견훤은 반란을 일으킨 시기부터 나주지역을 장악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나주지역은 나주·영암·영광·함평·무안·진도·완도·해남·강진 등 전라남도의 서남해안지역을 말한다. 이후 나주지역은 후백제와 태봉이 서로 확보하려고 쟁탈전을 전개하는 지역이지만, 결국 나주지역의 호족은 왕건을 매개로 하여 태봉에 귀부하였다. 이렇게 나주지역은 후삼국시기에 대체로 태봉의 영역으로 존속하였다. 다만 후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인 930~935년 사이에 후백제의 지배에 들어갔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후삼국시기에 전남지역에서 영산강·탐진강수계에 속하는 이른바 나주지역과 섬진강수계에 속하는 이른바 순천지역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였다. 그리하여 나주지역의 호족은 왕건을 통하여 태봉(후고구려)에 귀부하였고, 순천지역의 호족은 견훤의 후백제에 귀부하였다. 이에 두 지역의 호족은 대립·갈등관계에 있었다. 견훤은 자주 나주지역을 공격하였지만 나주지역 호족의 완강한 저항으로 나주지역을 장악하지 못하였다. 견훤이 나주지역

을 공격하였을 때, 물론 순천지역 출신의 호족이나 군인들이 일정하게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전남지역 호족의 동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0여 년 전에 장보고가 암살될 무렵에 있었던 해상세력과 내륙 토호세력 사이의 대립·갈등과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순천지역 출신의 호족이나 정치세력의 동향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먼저 이 지역의 호족으로 널리 알려진 박영규(朴英規)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박영규에 대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박영규는 승주인(昇州人)이다. 견훤의 딸을 아내로 삼고 견훤의 장군이 되었다. 신검(神劍)이 반역할 때 견훤이 (고려에) 내투(來投)하거늘, 영규가 비밀히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대왕이 40여 년 동안 근로(勤勞)하여 공업이 이루어지려 하는데, 하루 아침에 집안 사람의 화로 땅을 잃고 고려에 투항하였다. 대개 정녀(貞女)는 두 지아버를 섬기지 않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우리 임금을 버리고 적자(賊子)를 섬긴다면 무슨 낮으로 천하의 의사(義士)를 볼 수 있으리오. 하물며 듣건대 고려 왕공(王公)은 인후하고 근검하여 민심을 얻었다 하니, 아마도 하늘이 계시한 바로, 반드시 삼한의 주인이 될 것이라. 어찌 서한을 보내어 우리 임금을 위안(慰安)하고 겸하여 왕공에게 은근(殷勤)함을 표하여 장래의 복을 도모하지 않으리오.” 하니, 그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씀이 곧 나의 뜻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조 19년 2월에 영규가 드디어 사람을 보내어 귀부하고, 또한 말하기를 “만약 의기(義旗)를 일으키면 내 응하여 왕의 군대를 맞이하겠습니다.”고 하니, 태조가 크게 기뻐하여 그 사인(使人)에게 후히 사(賜)하여 돌려보내고 영규에게 회보(回報)하기를, “만약 그대의 혜택을 입어 도로가 막히지 않으면, 먼저 장군을 배알(拜謁)한 후에 당상에 올라가 부인을 배(拜)하고, (장군을) 형으로 섬기며 (장군의 부인을) 누님으로 높여 반드시 끝까지 후히 보답할 것입니다. 천지 귀신이 다 이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였다. 9월에 태조가 신검을 토벌하여 백제를 멸하고, 영규에게 말하기를 “견훤이 나라를 잃고 멀리 와도 그 신자(臣子)로서 한 사람도 위로(慰勞)하는 자가 없었는데, 홀로 경의 부부만은 천 리에 위로의 소식을 전하여 성의를 표하고, 겸하여 과인(寡人)에게 귀부하니 의리상 잊지 못하겠노라.” 하여 좌승(佐丞)을 제수하고, 전 1,000경을 사하였으며, 역마 35필로 가인(家人)을 맞아들이고 그 두 아들에게 관직을 주었다. 영규는 뒤에 관(官)이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렀다.(『고려사』 권92, 박영규전)

견훤의 사위 박영규가 귀부하기를 청하였다.(『고려사』 권2, 태조 19년 2월)

동산원부인(東山院夫人) 박씨는 승주인이니 삼중대광 영규의 딸이다.
(『고려사』 권88, 후비 1)

문공왕후(文恭王后) 박씨는 승주인이니 삼중대광 영규의 딸이다. 흥(薨)하매 문공왕후라 시(諡)하여 안릉에 장(葬)하고 정종묘(定宗廟)에 부제하였다.
(『고려사』 권88, 후비1)

문성왕후(文成王后) 박씨는 역시 영규의 딸로 경춘원군(慶春院君)과 공주 1명을 낳았다.
(『고려사』 권88, 후비1)

해룡산사(海龍山祠)는 아래의 인물조에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순천도호부, 사묘)^D

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순천도호부, 인물조에 “박영규는 … … 죽어서 海龍山神이 되었다.”고 언급된 것을 말한다.

박영규는 후백제왕 견훤의 사위이다. ... 죽어서 해룡산신이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순천도호부, 인물)

앞의 여러 사료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박영규는 승주인으로 견훤의 사위였다. 그는 견훤의 딸과 혼인하였고, 이어 견훤의 장군이 되었다.

후삼국시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족연합정권의 시대였다. 왕건뿐만 아니라 견훤과 궁예도 호족과의 연합을 통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정권을 유지하였다. 당시 후삼국의 건국자들은 각지의 유력한 호족들과 혼인을 통하여 연합하였다. 견훤도 자신의 지배적 권위와 정권안정을 위하여 여러 지방호족들과 연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그는 유력한 호족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혼인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주 북촌(北村)의 부호(富豪)와 혼인한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딸을 각지의 유력한 호족과 혼인시키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그의 사위인 지훤(池萱)과 박영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지훤은 광주의 성주, 즉 호족이었고 박영규는 후백제에서 장군의 지위에 있었다. 후백제에서 장군은 좌장군·우장군 등과 함께 특정한 임무와 권한을 가진 정규의 무관직으로서 단위부대의 지휘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영규가 견훤의 딸과 혼인하고 후백제의 장군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순천과 그 인근지역을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대호족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영규는 당시의 다른 호족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병력을 어느 정도 거느리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박영규는 어떻게 하여 순천의 호족으로 성장하였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순천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순천은 농수산물 등 물산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섬진강 수계의 중심지였다. 당시 섬진강의 수운은 보성강의 상류인 현 보성군 북내면까지도 가능했다.²⁾ 따라서 현 순천시의 북부지역인 주암면이나 송광면은 수운을 통하여 섬진강 하구까지 연결되었다.

또한 순천시의 남부지역은 직접 바다와 연결된 해안이다. 이곳에는 고려 초에 조창(漕倉)으로 해룡창(海龍倉)이 설치되었다. 해룡창의 위치는 사비포(沙飛浦)였는데, 사비포는 1480년(성종 11)에 조양포(潮陽浦)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양포는 현 순천시 흥내동(鴻內洞) 인근에 위치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해창포(海倉浦)가 있었는데 세곡(稅穀) 운송의 포구였다.³⁾ 해창포는 현 해룡면 해창리(海倉里)로 추측된다. 해창리는 동천(東川)의 하류, 동천이 이사천(伊沙川)과 합류하는 곳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 초부터 조선시대까지 순천시의 남부해안지대는 해상활동의 주요한 근거지였다.

이와 같은 순천의 지리적 여건으로 미루어보아 해상활동이 활발했던 신라 말 고려 초에 순천에는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해상세력이 존재했을 것이 분명하다. 박영규를 해상세력이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사료는 없지만 그가 해상세력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1784년에 조현범(趙顯範)이 저술한 『항남악부(江南樂府)』에 나오는 다음의 기록을 검토해보자.

2) 이는 「大東輿地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동여지도」에서 강을 표시한 것에, 두 개의 선으로 그리고 그 두 선 사이에 강폭을 나타내는 공간을 배치한 경우는 水運이 가능한 곳이다.

3) 물론 海倉浦에는 해창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海倉은 府의 남쪽 15리 해안에 있다.” (『신증승평지』, 倉庫)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양구지(平陽舊志)』에 이런 기록이 있다. 박영규는 강남군(江南君)의 후손이며, 견훤의 사위였고, 이 땅의 군장이었다. 도리(道里) 해룡산 아래 홍안동(鴻雁洞 : 옛 성터가 있다)에 웅거하고 있었다. 나중에 고려에 투항하여 좌승의 벼슬을 받았다. 죽어서 해룡산 산신이 되었고(옛날에는 사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순천 박씨의 증시조가 되었다.(조현범, 『항남악부』, 『인제산』)

『형양구지(平陽舊志)』는 이수광이 1618년에 편찬한 『증평지(昇平志)』 이전에 있었던 순천의 읍지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박영규는 도리(道里) 해룡산 아래 홍안동에 웅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룡산이 도리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다. 도리는 도리면이고, 홍안동은 현 순천시 홍내동이다. 따라서 해룡산은 홍내동에 있는 망월산(望月山)임이 분명하다.⁴⁾ 해룡산 인근에는 조양포라는 포구가 있었는데, 이곳에 고려 초에 해룡창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박영규는 포구에 위치한 해룡산에 웅거하면서 순천지역의 군장으로 군림하였다. 이것은 그가 해상세력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가 직접 해상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휘하에 순천의 군소해상세력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군소해상세력을 장악하여 해상무역의 이익을 차지함으로써, 그는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고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런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주지역을 지배하는 군장, 즉 유력한 호족으로 성장하였다.

박영규가 순천지역의 대호족이었다는 것은, 그가 왕건에게 귀부한 후에 왕건이 그를 매우 극진히 대우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왕건은 박영규를 형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였고, 그에게 좌승이라는 고위관계(官階)를 제수함과 아울러 전 1,000경과 말 30필을 사하였으며, 그의 두 아들에게도 관직을 주었다. 또한 박영규의 세 딸은 각각 왕건의 부인(동산원부인)과 정종의 부인(문공왕후·문성왕후)이 되었다. 이러한 대우는 단지 그가 후백제 멸망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그가 강력한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던 대호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실 호족연합정권시기인 고려 초(태조·혜종·정종·광종)에 3명의 딸을 왕실에 납비(納妃)한 호족 가문은 세 사례가 있을 뿐이다. 하나는, 평산(平山)의 대호족인 박지운(朴遲胤)과 그의 두 아들 박수문(朴守文)·박수경(朴守卿) 3부자의 평산 박씨 가문이다. 또 하나는 광주

4) 1789년에 간행된 『戶口總數』에는 순천부 道里面 管内에 鴻頭洞과 雁洞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 이 홍두동과 안동을 합하여 鴻雁洞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1912년에 간행된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는 홍두동이 鴻頭里로, 안동이 內洞里로 기록되어 있다. 이어 1914년에 홍두리와 내동리가 합해져 鴻內里로 불리며 道沙面에 소속되었다. 그후 홍내리는 鴻內洞이 되었다. 현재에도 內洞은 안동으로 불리지기도 하며, 홍내동은 홍안동으로 불리지기도 한다.

한편 해룡산에는 토성 옛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海龍倉 : 海龍山에 토성 옛터가 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貢稅를 받아서 漕運하던 곳이라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순천도호부, 古跡). 그런데 현재 홍내동에는 해룡산이라 불리는 산은 없고, 대신 望月山이 있다. 이 망월산에는 현재 토성 옛터가 남아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망월산이 해룡산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망월산은 옛 순천부 관아로부터 남쪽 10리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해룡산은 府의 남쪽 10리에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순천도호부, 山川)는 기록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이상의 검토에 의하여, 海龍倉이 위치했던 潮陽浦가 현 순천시 홍내동 망월산 인근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廣州)의 호족 왕규(王規)이다. 마지막 하나는 순천의 호족인 박영규의 순천 박씨 가문이다. 그런데 평산 박씨 가문은 3부자가 각각 1명의 딸을 납비하였는데, 박영규는 혼자서 세 딸을 납비하였다. 당시에 두 딸을 납비한 경우는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동주(洞州)의 호족 김행파(金行波), 청주의 호족 김궁률(金兢律)이다.

이와 같이 박영규는 순천지역을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유력한 호족이었다. 이런 박영규와 혼인을 통하여 연합한 견훤의 의도는 그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즉, 견훤은 박영규와 연합함으로써 무주 동남지역을 후백제의 확고한 영역으로 확보하고자 하였고 나주지역 호족의 이반에 따른 서남해 일대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견훤의 의도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여겨진다.

박영규는 견훤정권에서 어떠한 정치적 역할을 하였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견훤정권 말기의 정치세력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견훤정권 말기에 두 개의 정치세력, 즉 신검계(神劍系)와 금강계(金剛系) 사이에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권력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신검계는 신검(神劍)·양검(良劍)·용검(龍劍)의 신검 3형제와 그 외척집단으로, 주로 광주지역의 호족으로 구성되었다. 금강계는 금강의 외척세력으로 주로 전주지역을 세력근거지로 삼고 있었는데, 박영규도 이 금강계의 정치세력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검계는 견훤정권 전기에 정권을 장악하였고, 금강계는 견훤정권 후기에 새로운 지배집단으로 등장하였다. 아울러 신검계는 대(對) 고려전(高麗戰)에 적극적·주전적(主戰的)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반면에 금강계는 대 고려전에 소극적·타협적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930년을 전후하여 금강계는 신검계를 출출하고 금강을 왕위에 추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불만을 가진 신검계가 935년 3월에 정변을 일으켜 금강을 살해하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함으로써 다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박영규는 신검의 정변을 승복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다. 박영규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우리 임금을 버리고 적자를 섬긴다면 무슨 낮으로 천하의 의사를 볼 수 있으리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신검의 정변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반신검세력이었던 것이다. 이런 정치적 입장에 있었으므로 그는 마침내 견훤의 뒤를 이어 고려에 귀부하였다.

박영규는 936년 2월에 사람을 보내어 고려 태조에게 귀부하였다. 그가 고려에 귀부한 것은 그가 견훤의 사위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신검정권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당시 호족들은 자신의 지배영역을 보존하고 그 영역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유력한 지배자에게 귀부하였다. 예를 들면, 연산(燕山) 매곡(昧谷)의 호족 공직(龔直)은 견훤의 세력이 강대해지자 그에게 귀부하였으나 견훤의 세력이 약해지자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이처럼 박영규도 순천에 대한 그의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왕건에게 귀부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박영규가 고려에 귀부한 것은 견훤의 귀부와 함께 후백제의 멸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물론 후백제 멸망의 결정적 원인은 신검 3형제와 금강 사이의 왕위쟁탈전을 둘러싼 내분이었다. 견훤과 박영규가 고려에 투항함으로써 후백제의 멸망은 급진전되었다고 여겨진다. 박영규가 후백제의 멸망에서 차지한 비중은, 그가 후백제 멸망 후에 왕건에게 받은 매우 극진한 대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건은 신검을 토벌한 후에 박영규에게 좌승이라는 고위관계를 제수하였고, 전 1,000경과 말 30필을 사하였으며, 그의 두 아들에게도 관직을 주었다. 박영규가 후백제의 멸망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장군으로서 자신의 독자적인 병력을 거느리고 있던 대호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김총(金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김총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김총은 견훤을 섬겨 관(官)이 인가별감(引駕別監)에 이르렀다. 죽어서는 부(府)의 성황신(城隍神)이 되었다.(『진증동국여지승람』 권40, 순천도호부, 인물)

성황사는 진례산(進禮山)에 있다.(『진증동국여지승람』 권40, 순천도호부, 사묘)

진례산은 부의 동쪽 73리에 있다.(『진증동국여지승람』 권40, 순천도호부, 산천)

진례부곡(進禮部曲)은 여수현(麗水縣) 동쪽 25리에 있다.(『진증동국여지승람』 권40, 순천도호부, 고적)

김총은 ... 죽어서 부의 성황신이 되었다. ... 사(祠)는 진례산에 있다. 관에서 유생을 보내어 봄과 가을에 제사지낸다.(『조현범, 향남약부』, 「김별가」)

이 기록들에 따르면 김총은 순천 출신으로 견훤정부에서 인가별감이라는 관직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죽은 뒤에 순천의 성황신으로 받아들여졌고 진례산에 그를 봉사하는 성황사가 세워졌다. 이 성황사에서 정조대에도 그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례산은 옛 진례부곡에 자리잡고 있으며, 진례부곡은 현재 여천시 상암동의 진북(進北)·진남(進南)마을에 있었다. 진례산은 진북·진남마을 인근에 위치하는 산으로 추측되는데 「대동여지도」에는 진례산이 홍국사·영취산 인근으로 표기되어 있다. 진례산이 위치한 현 여천시 상암동은 당시 승평군의 속현인 해읍현(海邑縣)의 영역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도 순천도호부 사람들의 성황신으로 신사에 봉사되었던 것으로 보아 김총은 그가 죽은 후에도 이 지역 주민에게 대단한 추앙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실 김총이 견훤정부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김총이 맡았다고 하는 인가별감이라는 관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띠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별감이라 한 것을 보면 견훤 친위부대의 장이라는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가별감은 자연히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관직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가별감은 견훤의 호위부대의 장으로 군사적인 실권을 가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에 임명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는 견훤의 신임을 받는 견훤의 측근 중의 측근이었을 것이다. 서남해의 순천 출신으로서 군사적인 성격을 가진 인가별감의 관직에 있으면서 견훤의 측근으로 활약했다면, 그는 일찍부터 견훤과 함께 서남해안에서 동고동락하던 신라의 방수군(防戍軍) 출신으로 견훤의 휘하 군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견훤의 초기 핵심병력이었던 방수군 출신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견훤정권이 성립된 후에도 계속 견훤에 충성을 바치면서 그의 측근으로서 군사적인 임무를 띠고 활약하였다고 이해된다.

그러면 김총의 출신지는 순천도호부의 어느 지역일까. 김총의 묘와 그를 제향하는 사당인 동원재(同源齋)가 주암면 주암리 방축동(防築洞)에 있다. 동원재에는 18~19세기에 그려진 그의 영

정이 모셔져 있다. 이 영정에는 ‘성황신(城隍神) 김총(金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⁵⁾ 이로 미루어 그는 주암면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던 인물로 추측된다. 주암면은 신라 하대에는 곡성군의 속현인 부유현의 영역이

었으며, 부유현은 고려 초에 승평군의 속현이 되었다.⁵⁾

그런데 그를 봉사하는 성황사가 왜 그의 출신지가 아닌 진례산에 있는 것일까. 아마도 진례산이 그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진례산 인근에서 방수군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추측은 당시 견훤이 근무했던 서남해의 방수군이 해상이나 해안에서 해적의 퇴치나 주민의 보호에 주력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타당할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그가 근무했던 지역에 위치한 진례산에 성황신으로 봉사되었다고 본다. 또 바다가 보이는 진례산에 그를 성황신으로 모시는 것이,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황신은 고을의 수호신이기 때문이다.

김충이 순천지역 주민들에게 성황신으로 받아들여져서 성황사에 봉사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황신앙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황은 원래 국가나 고을의 방어시설에 대한 단순한 명칭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게 됨에 따라 성황신앙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성황신은 국가나 고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는 성황사에 배향된 인물이 무신이나 장군, 고을의 방어를 위해 전투에 참가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황신앙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기 이후에 널리 퍼졌다. 대체로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에 공로를 세운 장수들을 성황신으로 모셨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승리를 기원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에는 감사의 표시로 성황신에 제사를 지냈다. 이처럼 각 지역의 성황신이나 성황사는 지역민들을 정신적으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김충은 견훤의 호위부대의 장이었다. 이런 그가 후백제에 대한 폄하(貶下)의 분위기가 상당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고려 초에, 순천의 성황신이 되었다는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각 군현의 성황사에 배향된 인물로는 6명이 확인되는데, 소정방(蘇定方)과 김충을 제외한 김인훈(金忍訓)·김홍술(金洪術)·신승겸(申崇謙)·손공훈(孫兢訓)은 왕건 휘하의 장수이거나 왕건을 도왔던 인물이다. 김충은 유일하게 후백제 출신의 인물이다.

고려 초에 견훤의 장수가 순천의 성황신으로 모셔진 것은, 그가 출중한 능력을 지닌 장군이었던 사실에 기인한다. 이외에도 순천지역이 견훤정권의 주요한 근거지였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만큼 순천지역에는 후백제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순천지역의 주민들은 해룡산신인 박영규와 함께 김충을 순천지역의 수호신으로 혹은 그들의 수호신으로 사묘에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순천지역의 주민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시 승평군과 그 속현인 해읍현의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결집되었을 것이다.

김충은 순천 김씨의 시조였다. 고려시대에 순천 김씨는 중앙에 진출하여 크게 영달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재지에서만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고려 말에 사족으로 성장하였던 것 같다. 순천 김씨가 배출한 인물로는 조선 초에 활동한 김중서가 널리 알려진 경우에 속한다.

5) 영정(102.8×57.8cm)은 1988년 12월 21일에 전라남도 지방민속자료 27호로 지정되었다.

6) 김충의 출신지는 그를 모신 성황사가 있는 진례산 인근의 어느 곳, 즉 당시 승평군의 속현인 海邑縣(고려시대에는 여수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